

험한 길보다 잘 닦인 길로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영향력 강화. 외국인과 기관을 압도하는 매매 지속
다만 개인들의 관심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기에 보다 정밀한 전술 필요
이와 관련해 EPS, RSI, PER 등 기준을 확인할 필요. 업종 중 IT에 관심 유지

이익, 가격, 밸류에이션을 점검할 필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강해졌다. 폭증한 개인 거래가 이를
방증한다. 일례로 연초 개인들의 매수대금과 매도대금 합계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을 합해도 12.6조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21일에는 코스피에서 15.9조원,
코스닥에서 21.7조원으로 약 37.6조원의 거래가 진행됐다. 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및 매도 대금 합계의 2배에 이른다.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찾아온 이유는 명확하다. 예금금리 하락으로 돈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대출금리도 낮아져 돈을 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
이다. 최근 한국 기준금리가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시장금리도 이전보다 하
락했기에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의 관심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개인들의 선택이 높은 투자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주 개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했던 종목들은 주간 기준으로
대부분 (-)를 기록했다. 주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 코스닥 2차전지 소재 종목도 모두 약세였다. 이를 미루
어 보면 이제는 종목 선택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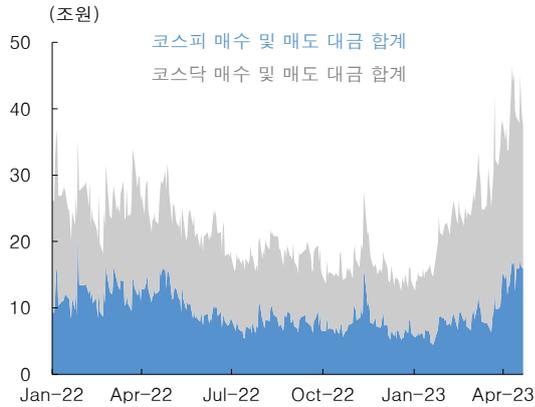
최근 개인들이 투자했던 종목들을 보면 이익 모멘텀과 관련된 EPS 변화와 가격
및 밸류에이션 부분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PS 증가세가 확인
되지 않아도 돈을 넣었고, 가격과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아도 과감한 투자를 감행
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이 높은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으나 난이도가 높아진 최근
주식시장에선 그 확률이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향후 투자에 있어 이익의 증가 여부, 상대적 가격 수준, 적당한 밸류에이션 수준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 주가 상대강도
(RSI), 12개월 선행 PER 레벨 등을 고려해 종목을 선정했다. KRX 300 종목 가
운데 IT, 산업재, 유틸리티 등이 해당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 당장
은 험한 길보다 잘 닦이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게 확률 상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김대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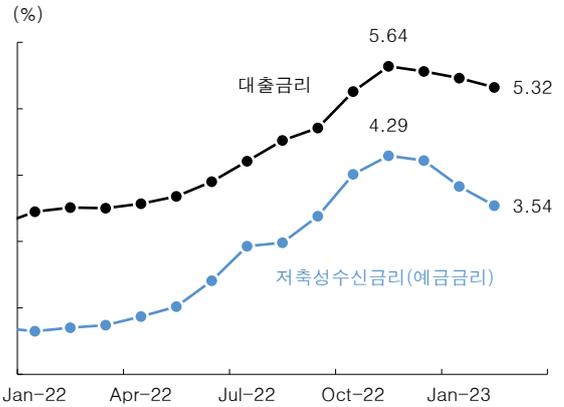
daejun.kim@koreainvestment.com

[그림 1] 1분기 개인 주식거래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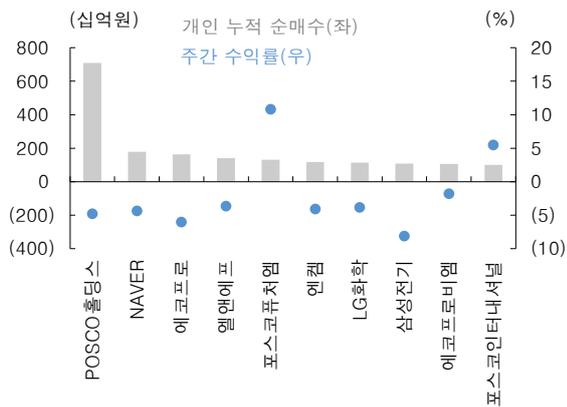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낮아진 금리가 자금 이동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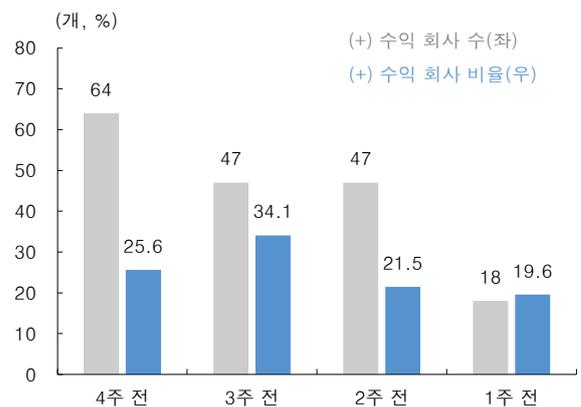
주: 신규취급액 금리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3] 개인 순매수 종목과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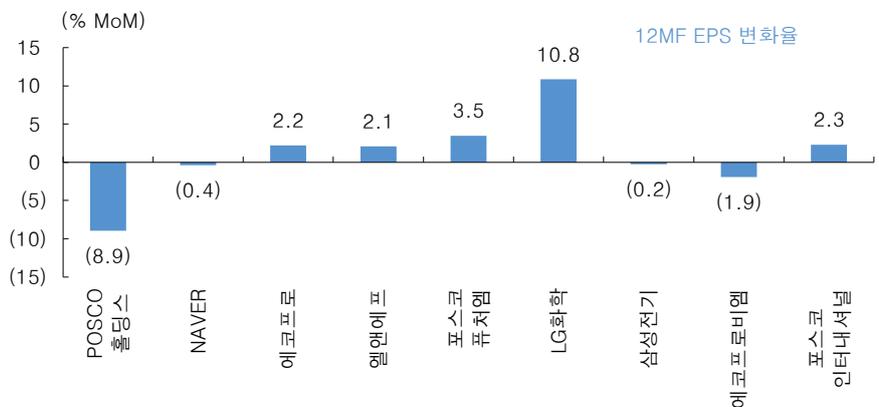
주: KRX300 종목, 4월 21일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4] 개인 순매수 종목 중 (+) 수익률 종목 수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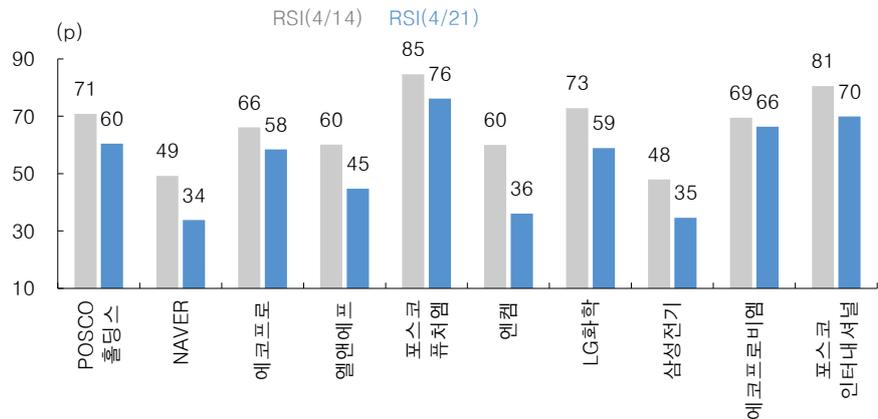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지난주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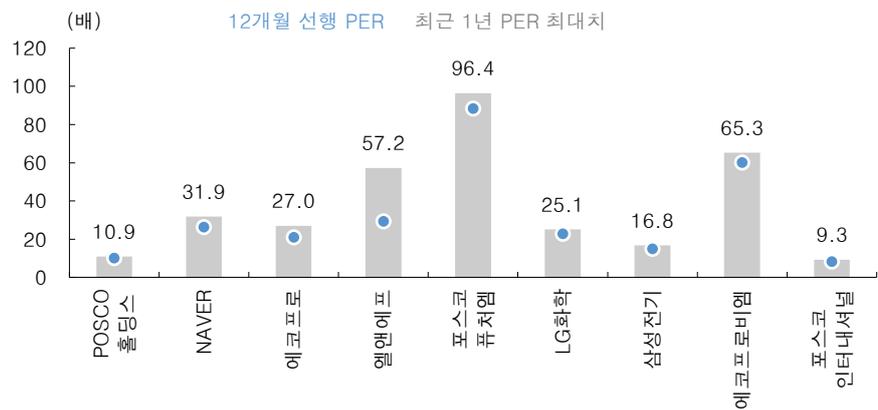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지난주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상대강도(RSI) 변화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지난주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12개월 선행 PER 변화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표 1> 관심 종목 10선: 이익 모멘텀 강하고 가격 부담 크지 않은 종목

(단위: 십억원, 원, % MoM, p, 배)

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수정주가	12MF EPS	EPS 증가율	RSI(상대강도)	전주대비 변화	12MF PER	현재/1년 최저
A042700	한미반도체	2,103	21,600	1,301	27.9	69.7	28.5	16.6	75.9
A010120	LS ELECTRIC	1,911	63,700	5,856	6.1	68.6	0.1	10.9	89.3
A108320	LX세미콘	1,752	107,700	12,931	4.6	54.3	25.8	8.3	88.4
A090460	비에이치	812	23,550	3,575	4.2	47.5	20.0	6.6	74.5
A272450	진에어	841	16,110	1,808	4.0	44.1	2.2	8.9	4.6
A071050	한국금융지주	3,199	57,400	13,048	3.4	64.9	1.8	4.4	88.5
A051600	한전KPS	1,697	37,700	2,836	2.7	50.7	1.2	13.3	88.5
A052690	한전기술	3,058	80,000	829	2.5	57.7	6.4	96.5	50.6
A336260	두산퓨얼셀	2,184	33,350	429	2.4	49.3	6.6	77.8	63.2
A166090	하나머티리얼즈	896	45,350	3,978	1.9	63.2	4.5	11.4	80.8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